



미 증시, 금리인하 기대감 이어지며 9일 연속 상승

미국 증시 리뷰

19일(화) 미국 증시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금리인하 기대감 유지, 10년물 금리 하락, BOJ의 완화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승. (다우 +0.68%, S&P500 +0.59%, 나스닥 +0.66%)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금리인하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 2회 인하를 전망. "인플레이션이 향후 6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천천히 내려갈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제약적 스탠스를 급하게 되돌릴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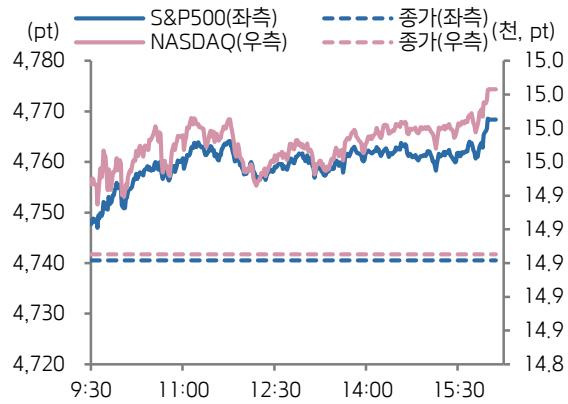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물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한 진전(Good progress)이 이뤄졌지만, 금리인하 논의는 너무 이르다고 강조.

BOJ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단기금리 -0.1% 유지,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 0% 부근으로 유지한다는 기준 방침을 지속.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부근으로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임금 상승세가 충분한지를 추가로 확인해 가면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입장. 다만 YCC 관련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한(1%)을 초과해도 일정 수준 용인한다고 밝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에 엔화 강세가 되돌려지며 달러/엔 환율 상승.

미국 11월 신규 주택 착공건수는 mom 14.8%(예상 -0.9%, 전월 0.2%)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 대 아래로 하락한 영향과 주택 구매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 미래 주택 수요를 반영하는 11월 건축 허가건수는 mom -2.5%(예상 -2.2%, 전월 1.8%)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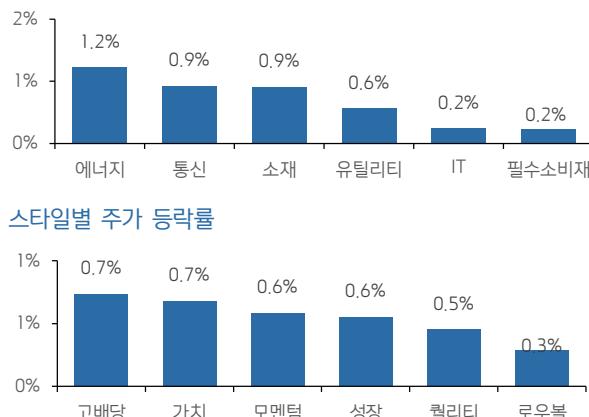
전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1.2%), 통신(+0.9%), 소재(+0.9%)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필수소비재(+0.2%), IT(+0.2%), 유ти리티(+0.6%)의 상승폭이 작았음.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68.55	+0.07%	USD/KRW	1,307.71	+0.8%
코스피 200	343.95	+0.13%	달러 지수	102.11	-0.44%
코스닥	858.30	+0.86%	EUR/USD	1.10	-0.01%
코스닥 150	1,390.85	+1.35%	USD/CNH	7.13	+0.06%
S&P500	4,768.37	+0.59%	USD/JPY	143.81	-0.02%
NASDAQ	15,003.22	+0.66%	채권시장		
다우	37,557.92	+0.68%	국고채 3년	3.274	-0.5bp
VIX	12.53	-0.24%	국고채 10년	3.305	-3.3bp
러셀 2000	2,020.95	+1.94%	미국 국채 2년	4.439	-0.7bp
필라. 반도체	4,125.56	+0.53%	미국 국채 10년	3.931	+0bp
다우 운송	16,104.63	+0.89%	미국 국채 30년	4.039	-0.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535.40	+0.32%	WTI	73.94	+1.54%
MSCI 전세계 지수	717.30	+0.12%	브렌트유	79.33	+1.77%
MSCI DM 지수	3,131.35	+0.17%	금	2052.1	+0.57%
MSCI EM 지수	997.91	-0.3%	은	24.04	+0.88%
MSCI 한국 ETF	64.91	+1.12%	구리	389.6	+1.2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8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8.5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12 월 FOMC,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
2. 원/달러 환율 및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가 하락
3. 장중 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로 변동성 확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 증시가 9 일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에 이어 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은 3 가지. 1)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내년도 금리인하에 대한 컨센서스 유지, 2) 미 경기 연착륙 기대감, 3) 물류 대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 완화.

연준위원들은 금리인하 논의는 시급하지 않다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도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에 시장은 위험선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 특히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전일 발언에서 내년 2 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12 월 FOMC 점도표 전망이었던 3 회 인하 대비 축소된 전망을 언급했으나 시장은 내년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판단.

또한 11 월 주택건설 지표의 반등, 애틀랜타 연은 GDP 추정치 상향은 미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장기물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30 년물 모기지 금리가 8 월 이후 처음으로 7% 하향 돌파. 과거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아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모기지 금리 하락은 신규주택 매매로 이어질 수 있음. 애틀랜타 연은 GDP 추정치는 지난주 1.2%에서 2.6%로 상향된 이후 2.7%로 추가 상향조정.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미국이 홍해의 상업용 해양 수송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작전을 창설한다는 보도에 급등했던 유가는 안정되며 우려는 완화. 그러나 수에즈 운하 우회에 따른 보험료와 노선 연장에 따른 수송기간 연장의 여파를 지켜볼 필요.

BofA 에 따르면 산타랠리는 12 월 마지막 5 거래일과 1 월 첫 2 거래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때, 과거 해당 7 거래일간 S&P 500 의 평균 수익률은 1.66%였으며 79%의 확률로 랠리를 보였다고 분석. 올해 S&P500 은 12 월 첫 10 거래일에서 3.3% 상승하며 산타랠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증시의 경우 반도체 강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의 이슈가 추가 강세를 결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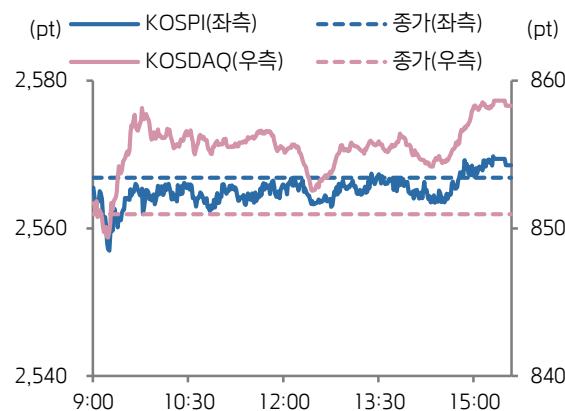
19 일(화) 국내 증시는 전일 미증시 강세에도 거래대금 감소, 원/달러 환율 상승, 대주주 양도세 불확실성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 예상치에 부합한 BOJ 결과에 강보합 마감. (KOSPI +0.07%, KOSDAQ +0.86%)

금일에는 미증시 호조, 원/달러 환율 하락에 힘입어 상승 출발 하겠으나, 장중 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로 변동성 확대 예상.

위믹스 행사, 네이버 신규 스트리밍 플랫폼 베타 테스트, 1 월 JP 모건 컨퍼런스 등 이벤트로 일부 개별종목 장세 이어지며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 반면 SK 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둔화. FOMC 이후 원/달러 환율 급락, 금리 하락에 따라 외국인 매수가 1.4 조원 유입되며 코스피 대형주 수익률이 아웃퍼폼했던 지난주 대비 코스피 상승탄력은 약화, 결국 2,600 선 인착에 재차 실패. 코스닥의 경우 금일 발표될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개정안 내용에 따라 추가 상승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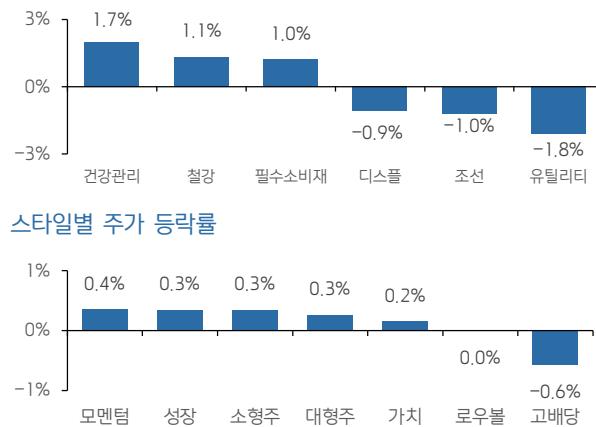
19 일 국회 기획재정부 청문회 이후 대주주 요건 완화 가능성은 확대.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기한은 12 월 마지막 거래일의 2 거래일 전인 26 일. 금일 대주주 요건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올해 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26 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함. 만약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과일 시 큰 폭의 되돌림 나타날 수 있으며, 펀더멘탈과는 별개의 수급 노이즈이기 때문에 연말 이후 반등을 노리고 저가매수로 대응 가능.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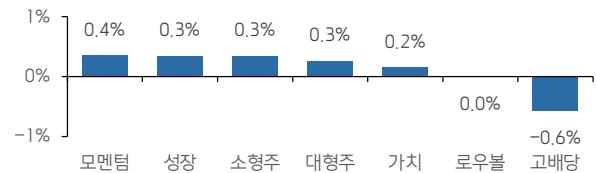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